

춤의 사회적 기능 - 삶을 치유하는 춤

The Social Function on Dance - Dance That Heals Life

최경실*

스프링 댄스 시어터*

Choi Kyung-sil*

Spring Dance Theater*

요약

진정 자기 춤을 출 줄 아는 자각적 존재로 스스로 치유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긍정하며 웃고 놀며 가벼워진 몸으로 춤추며 사는 인간, 인간의 본성과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 받는 생명의 문화를 복원하는 인류 보편적 춤을 추어 인류 공동체가 처한 위기, 경직과 지식정보로 무장된 혹은 과학 문명으로 살균된 사회, 인조인간과도 같은 삶에 생명력을 넣어 줄 묘약으로서 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I. 서론

생산과 효율성을 앞세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가는 중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이상 또는 가치가 소외되고, 기계와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편리성과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우린 인간의 존재론적 본성을 망각하고 과학의 맹목적 추구로 반자연 친물질의 문화가 보편화 되며 자연성인 인간이 자연임을 부정하고 인공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죽이는 것이 진보된 문명이라는 비틀린 욕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자연성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긍정하는 생명의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몸'의 자각을 통한 스스로의 창조적 춤을 추어 삶을 치유하는 춤의 문화가 필요하다.

II. 본론

1. 춤, 생명의 문화

'춤의 문화'를 담는 그릇은 '몸의 문화'이다. 자기스스로의 춤을 추기 위해 몸의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춤을 잊었다면 몸을 잊었다는 것과 같다. 또한 몸을 잊었다는 것은 몸의 감각들을 잊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일체의 깊이'에 대한 감각이다(1) 우리가, 이 세계가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 감각, 느낌, 생각, 표현, 몸, 움직임, 춤... 감각을 잃으면 느낌을 잃고, 표현 창조도 잃게 된다. 몸은 감각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몸은 자연성으로 생명력 자체이며 문제를 풀 열쇠이다. 이 시대의 위기와 병폐들의 처방과 대안으로 '춤의 문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몸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몸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이며 '인간', '삶'의 이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몸은 나 자체이며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세계에 참여하는 실질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신 없는 몸은 맹목이며, 몸 없는 정신이란 공허하다'(2) 몸은 신체와 정신이 섞여있는 일원론적 관점과 인류의 역사와 함께 모든 경험과 기억과 정보와 감정이 뼈와 살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몸의 문화'로 이해할 때, '춤의 문화' 또한 생명의 문화로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춤의 재료는 몸이기 때문이다. 몸의 세계는 느낌과 감정 그리고 영혼이 살고 있는 박물관이며 유산이다. 이러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즐기고, 몸의 경이로움에 머물기 자체가 자각이고 생명이 일어나는 춤이다.

2. 존재의 변환을 위한 춤

'우주의 거대한 공간 그리고 건잡을 수 없는 원초적인 세계의 힘 가운데 놓인 인간의 삶에 대한 긴 명상'(3)이 춤이다. 춤은 숨겨져 있던 삶의 깊은 의미를 스스로 드러나게 하며, 자연과 생명 현상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온다. 그러므로 춤은 고도로 합일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춤은 교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내부와, 사물과, 자연과, 공간과의 교감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마음은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몸은 알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 감각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과 친밀감을 확장 시키는 것, 움직임으로부터 내면의 무의식과 본성이 반응하고 대답할 때, 몸이 자연의 일부임을 느낄 때 춤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으로부터 생명의 춤을 살려내고 끄집어 낼 것인가? '움직임'이다. 움직임, 몸의 풀석거림이 몸 안의 사유들을 나오게 하고, 감각을 깨우고,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형상화 시켜준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스스로 찾아

가게 하면 몸은 자연의 리듬을 찾아 시원으로부터의 몸과 모든 사물과 자연과 어울리게 되며 이것이 춤이 된다. '낮은 기술, 높은 감수성'으로 얼마든지 춤의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춤이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고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정형화된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춤이 아니라 자기 몸의 내부로부터 찾아낸 움직임으로 자기화가 된 춤을 출 때, 자아를 변형시키는 존재의 변환이 찾아오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

춤은 인식이 분절화 되기 이전의 인식대상 전체에 대한 지각적, 감각적 인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며 우리와 자연이 하나가 되며 나아가 지구와 함께 호흡하여 개개인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확장하며 생명을 축복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있다.

Ⅲ. 결론-삶을 치유하는 춤

춤을 치유하는 춤, 삶으로부터 나쁜 기운을 덜어주는 춤, 삶으로부터 죄의식을 걷어내는 춤, 삶을 긍정하는 춤, 삶을 사랑하는 춤은 가능할까? 춤의 본질은 이미 치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춤의 고유성은 인간과 표현과 예술, 삶 전반에 걸친 것을 경계 없이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 하면서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게 한다.

동작이 양식화된 자기 억제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몸짓에서 자유로울 때, 동작과 느낌 사이의 본질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자기 해방과 자기 틀의 인식과 재창조의 발견을 지향하게 되며, 느낌의 자유는 치유 과정이 일어나고 억압과 모순된 감정으로 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어 정신과 영혼에게도 공간을 주어 휴식과 재창조의 긍정적 에너지가 피로 사회를 생기 있게 할 근원적 힘을 되찾고 삶을 치유하는 춤을 추게 된다.

인류 공동체가 처한 최대의 위기는 몸을 통한 감각의 생생한 되살림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움직임을 통한 감각의 만남이고 춤을 통한 생성이다.

춤의 주된 기능은 존재를 생성케 하여 존재의 전환, 즉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춤이며 삶을 치유하는 춤이다. 그러므로 21세기는 회복과 치유, 생명의 지구 문명을 위해 춤이 절실하다.

■ 참고 문헌 ■

- [1] 김우창, 깊은 마음의 생태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p. 468, 김영사, 파주, 2014.
- [2] 김정현, 니체의 몸철학, p. 184, 문학과 현실사, 서울, 2000.
- [3] 김우창, 깊은 마음의 생태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p. 180, 김영사, 파주, 2014.